

본교 구조조정 진행 상황은?

응용인문학과와 경제부동산학과 학과 통합 신청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4월 2일 2차 간담회 진행돼

(2차 간담회 당시 학과 통합 및 모집단위 광역화 진행학과)

단과대학	구조조정 신청학과(가칭)	기존학과	비고
인문대학	응용인문학과	한국어문학과 지식정보학과	철회
사회과학대학	경제부동산학과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철회
예술대학	패션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	
	융복합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학과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기계 및 산업·안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철회신청
	전자정보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스마트제품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지난 2일 오후 4시 창의관 소강당에서 학과 통·폐합 관련 2차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3월 23일에 진행된 1차 간담회 이후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2차 간담회를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2차 간담회에는 이창원 교무처장, 조혜경 기획협력처장, 김동환 학생지원처장, 홍정환 입학홍보처장, 조자연 총무처장이 지난 달 27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면으로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뒤,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차 간담회 시작에 앞서 오진형(학생지원팀) 팀장은 "2차 간담회에서는 4월 2일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설명할 것"이라 말했다.

본교 학과 구조조정의 배경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에 대해 조혜경 처장은 "갑자기 논의된 것이 아니라 대학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원원을 줄이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학의 교육과의 미스매치로 인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어 순수학문에 실용적인 영역을 포개어 줄 교과과정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는 86%의 정원감축으로 학과 존폐가 어려운 입장에 놓인 학과들이 생겼다. 조혜경 처장은 "이렇게 본교의 정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없애고 소위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신설

* 구조조정 신청학과는 4월 2일 2차 간담회 당시 발표로 근거함.

** 비고는 교수협의회 집행부 인터뷰(4월 10일)와 비상대책위원회 인터뷰(4월 11일)에 근거함.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학과들이 몸집을 줄여 같이 공존하며 고용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며 "학과를 통합하고 모집단위 광역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조정 배경 속 학과 교수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교수들도 반대하는 학과 통·폐합을 왜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창원 처장은 "4월 1일 교수협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하며 "본교는 학과 통·폐합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통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이다. 타 대학처럼 인문학과 순수에 술을 고사시키려는 관점이 다가가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러한 구조조정 배경 속 학과 교수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교수들도 반대하는 학과 통·폐합을 왜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창원 처장은 "4월 1일 교수협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는 '1안 금년에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2안 구조조정 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전면 유예한다', '3안 구조조정을 금년에 시행하되, 방법상의 수정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되었고, 투표결과 1안 38명(28.4%), 2안 58명(43%), 3안 38명(28.4)으로 총 134명이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원 처장은 "교수협의회에서는 2안과 3안 즉, 반대표와 수정보완의 표를 합쳐 구조조정 안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교협의 해석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즉 '유예'와 '시행'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본부는 2안과 3안을 통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해석에 대해 교협에서도 동의했다. 또한 이 건은 교수들에게도 공개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2차 간담회 이후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을 제외한 예술대학과 공학대학만 학과 통합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간담회 당시 발표된 응용인문학부의 경우 응용인문학과 학과를 통합 운영할 시 교직이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응용인문학부로의 통합 신청을 철회했다. 경제부동산학과 역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의 구조조정은 4월 17일 이사회를 거쳐 4월 30일 대학본부가 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식적으로 모집단위에 대한 명칭과 정원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서명운동 진행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7일부터 나흘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영민(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간담회 이후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재 학과 통·폐합이 시한기간과 맞물려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2차 간담회 이후 학과 통·폐합 반대 대자보를 게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2300여명의 학생들이 서명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영민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우리학과는 살아남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진행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취재부>

2차 간담회 이후 3차 간담회 요구해

2차 간담회가 끝나고 다음날 4월 3일 3차 간담회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되었다.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된 내용은 '간담회가 아닌 통보회 같았다', '2차 간담회는 학교 측의 원하지 않는 질문 거르기와 원하는 질문마저도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애매한 답변으로 끝났다', '구두로 듣는 공지사항과 Q&A 시간에 불과했다'라는 의견들과 함께 3차 간담회를 요구했다.

3차 간담회 진행 예정에 대해 묻자 조혜경 처장(기획협력처)은 "3차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각 학과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 아직 3차 간담회에 대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지면안내

보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을 반대한다'
학과 통·폐합 이대로 관철은가? **02**

기획
논란의 회칙과 세칙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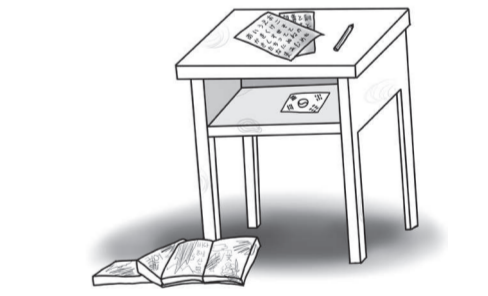
사회
우리의 교육권을 짓밟지 마라 **04**



사람사
루나폴 스튜디오
이루나 원장을 만나다
'선정적인 줄이 아닌 관능적인 플댄스' **06**



학술
연재기획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07**



문화
e-book에서 사랑은 깊어진다 **08**



2차 간담회 이후 학생들의 움직임 보여

지난 2일 진행된 2차 간담회 이후 많은 학내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 특히,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 등을 통해 일반 학우들도 적극적으로 글을 게재했다. 많은 학내구성원들의 움직임 중에서 주요활동을 뽑아 정리했다.

<편집자주>

04.03



2차 간담회를 비판하며 학생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지 뿌려짐

04.06



진리관 앞에서 손성민(경제 09) 학생이 "학생다운 방식으로 묻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함.

04.06

'낙산의 메아리'에 인문대학생회가 학과 통·폐합에 대한 입장표명을 게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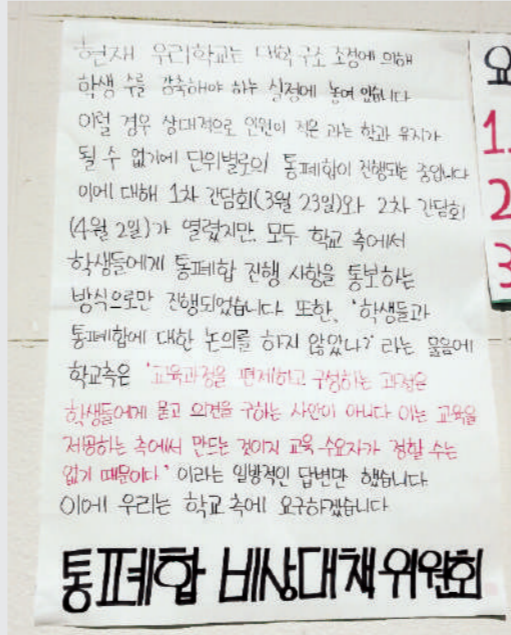
04.07~10

우진사, 미래관지하 그라지에, 공학관에서 한성대학교 통·폐합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과 학과 통·폐합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함



04.07

우진사에 한성대학교 통폐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서명서가 부착됨.



04.09

'낙산의 메아리'에 총대위원회가 학과 통·폐합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함.

04.10

'낙산의 메아리'에 한성대 통폐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 및 진행 경과를 보고함.

발행일정

발행호	발행일
503호	5월 18일 월요일
504호	6월 1일 월요일

동정란

박재홍(무용학과) 교수
박 교수는 이탈리아 스포레토에서 지난 3월 22일~28일 개최된 제25회 스포레토 국제무용콩쿠르(25th Internazionale Danza Concorso Citta di Spoleto)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을 반대한다’ 학과 통·폐합에 대한 교수협의회 의견 듣다

지난 3월 30일, 31일 양일간 교수협의회에서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투표를 진행되었다. 이후 교수협의회는 4월 7일 강신일 총장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인터넷을 통해 전교직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본지는 현재 추진중인 학과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교수협의회 집행부를 취재했다.

‘대다수 교수의 의견 목살했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에서 지난 3월 30일, 31일 양일간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투표를 진행되었다.

4월 1일 개표 결과 교협 임원진 186명중 총 134명으로 72.0%가 투표에 참가했고, ‘1안 대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수용’ 38표 (28.36%), ‘2안 전면유예’ 58표 (43.28%), ‘3안 수정과 보완을 전제로 금년 시행’ 38표(28.36%)로 나타났다.

이에 교협 집행부는 “강신일 총장과 각 부서 차장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대학본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교수들은 28.36%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교수(71.64%)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교협집행부는 대학본부로부터 “2안과 3안을 합쳐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안 금년에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3안 구조조정을 금년에 시행하고, 방범상의 수정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를 “금년시행”이라는 부분에서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해 1안과 3안을 합쳐 57.72%로 과반수의 구성원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안을 지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의 ‘수정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학과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3안의 취지는 ‘3안의 취지는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3안의 취지는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3안의 취지는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3안의 취지는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3안의 취지는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이는 일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연 전문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의 구심’

교협에서는 구조조정 신청 9개학과 중 ‘아트 앤 게임 그래픽 학과(가칭)’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클러스터를 모두 승인한 데 있어 기획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협 집행부는 “총 8개의 클러스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신청된 특정 단과대학 소속의 특정 학부/학과 클러스터의 타당성을 전공이 다른 대다수의 위원들이 과연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평가대상이 평가주체가 되는 모순’

평가의 전문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라며 교협 집행부는 “조례령 처장(기획협력

처)과 네 명의 학장들이 모두 이번 구조조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다른 평교수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한성대학의 주인은 총장과 보직자들이 아닌 구성원 전체’

한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구조조정은 대학에 오랜 기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한성대학의 주인은 총장과 보직자들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이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구조조정 신청 이유는 정원조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교협 집행부는 클러스터를 신청한 조직단위의 구성원들 상당수는 신청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통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이 아니라 정원조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혔다. 이는 교수협의회 공개석상에서 구두로,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피력하였고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는 투표결과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대학본부의 결정은 3안의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다”

‘한성대학의 주인은 총장과 보직자들이 아닌 구성원 전체’

한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구조조정은 대학에 오랜 기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한성대학의 주인은 총장과 보직자들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이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구조조정 연이어 신청 철회해

구조조정 신청 마감 당시 신청 학과(학과명 가칭)는 인문대학에 응용인문학부(한국어문학부/지식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에 경제부동산학부(경제학과/부동산학과), 예술대학에 패션학부(패션디자인학과/의류패션산업학과), 융복합디자인학부(시각영상디자인전공/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아트 앤 게임 그래픽학과(회화과/애니메이션전공) 컴퓨터소프트학과(멀티미디어공학/컴퓨터공학), 기계 및 산업·안전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과/산업경영공학), 스마트제품공학과(정보시스템공학과)로 총 9개였다.

이후 기획위원회 진행 단계에서 아트 앤 게임 그래픽학과가 철회했고, 나머지 8개의 클러스터는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4월 8일 교무위원회에서 8개의 클러스터가 승인된 가운데, 4월 9일 응용인문학부와 경제부동산학부가 신청을 철회했다. 응용인문학부의 경우 응용인문학부 학과를 통합운영할 시 교직이수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고, 경제부동산학부의 경우 신청교수들의 해석과 대학본부의 해석적 차이로 인해 철회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4월 9일 2차 교무위원회에서 6개의 클러스터만 남게 된 것이다. 4월 10일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가 구조조정 신청을 철회

회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협 집행부는 “4월 17일 이사회를 거친 후 본교 구조조정은 막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전개방향은?

본교 구조조정의 전개방향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본교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평가대상과 평가주체를 이원화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어 “이번 구조조정으로 교내 구성원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결속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본교 구조조정에 대해 A교수는 “구조조정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학교의 상황은 동의하지만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다. B교수는 “정확히 짜여진 커리큘럼이 없고, 솔림현상에 대한 대안책이 없는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라며 이어서 “이런 식으로 학과 정원감축을 면한다면 그것이 교육자로서 떳떳한 행동일까 의문이다”고 전했다.

(취재부)

이종혁 전 총학생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해

지난 4월 2일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 김지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장이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학과 통·폐합 건을 두고 학교와 이종혁 전 총학생회장이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돈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이종혁 전 총학생회장이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로서 들어가 학과 통·폐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학교와의 거래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이종혁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학과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한 적이 없다”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종혁 전 총학생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그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시 이러한 소문이 기정사실화 될 것을 우려해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돈 소문을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은 경솔했다”며 “이러한 태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학생생활상담실 새롭게 열려



지난 1일 학생생활상담센터가 기존 스타디움로 이전했다.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총 10명의 전문 상담사로 구성됐다.

학생생활상담센터는 기존의 학생생활상담, 접카페의 진로상담, 양성평등상담소를 일원화하고 글쓰기상담까지 확대편성 하였다. 권후관 학생

상담장은 “그동안 상담소들이 흩어져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한계점이 있었다”며 “이제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적으로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프로그램 기획과 인프라를 구축했으니 고민이 있을 때 학생생활상담실을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hipo96@hansung.ac.kr

“본인의 생식기를 그려보세요” 핵심B <성과 사회> 수업 과제를 두고 논란일어

지난 10일 금요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대학교 대신 말헤드려요에 올라온 게시물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본교 핵심교양B <성과 사회> 수업 과제로 본인의 생식기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한 학생이 “성과 사회 과제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성희롱으로 생각된다”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익명 제보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수가 2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이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사실 이런 과제는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라고 강사가 말했다고 주장해 더욱 논란이 된 것이다.

성과 사회 수업을 진행하는 최영 강사는 과제의 취지와 과제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인정했다. 또한 “내 몸의 주인은 나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주체가 되어 알지 못하고 타인에게 먼저 보여지게 되는 방식은 좋지 않다”며 “이에 자신의 몸을 알아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과제를 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강사는 “솔솔하다는 용어는 사용한 바 없다”며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죄송하다. 이 발언은 과제 형식에 대한 재미지 내용에 대한 재미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해당 수업 수강생인 김정안(한국어문 2) 학생은 “지금까지 성에 대한 과제가 매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적 감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배웠다”며 “과제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문제적인 성향을 띠긴 하지만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일인가 싶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게시물에 본교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의 글을 토대로 해서, 즉각적으로 담당 교수님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최혜정 기자 hipo96@hansung.ac.kr

제9회 사진공모전

기간
4월 13일 (월) ~ 5월 20일 (수) 오후 7시까지

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제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응모방법
사진공모전 신청서와 작품을 한성대 신문사에 직접 제출 (사진은 8×10 크기로 인화)

제출장소
한성대 신문사 (학생회관 제1별관 2층)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504호 (6월 1일 발행)

상금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40만원
佳作 (1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문의
한성대신문사 02) 760-4186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진공모전 신청서를 작성해 응모작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우수상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보궐선거, 그리고 논란의 회칙과 세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지난 3월 16일·17일 양일간 진행된 제31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재적인원 7,087명 중 2,938명이 투표해 41.46%의 투표율을 부결되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투표율 부족으로 부결된 '인정' 선거운동본부 신석호(정시 4) 정후보·김민경(예대 3) 후보가 재등록했다. 이를 두고 일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두고 갑론을박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확대운영회의가 진행되어 중앙기구,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선거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회칙과 선거세칙을 두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북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가지 주장 모두 맞아 어느 하나를 틀렸다고 말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확대운영회의결과 '인정' 선거운동본부의 재등록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하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선거가 재개되었으나, 학생지원팀이 임의로 중단시켜 논란이 되었다.

선거와 관련해 학생지원팀의 오진형 팀장은 지난 4월 2일 진행된 학과 통·폐합 간담회에서 "본교의 회칙은 시행세칙의 상위법이다. 그러므로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이 회칙에 관련해 '인정' 선거운동본부 후보의 출마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도 학생회칙 안에 구성되는 것이다. 학생회

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다. 중선관위가 선거에 있어서 학생회칙을 뒤집었으며 임의로 꾸며내고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학생회장들이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와의 재논의를 통해 2015년도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중선관위는 학생지원팀과 선거속행을 주제로 면담을 했다. 면담결과 학생지원팀은 확대운영위원회(학생회장단)가 현 선거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학생지원팀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총학생

회 선거를 도와 줄 수 없었다. 회칙의 논란된 부분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총학생회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학생지원팀은 이런 총학생회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4월 10일 낙산의 메아리에 "선출과정은 학생자치권이 보장된 민주적 선거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선관위의 입장이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사상 가장 긴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naver.com

지난 보궐 선거에서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양립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세칙과 회칙이 논란이 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또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칙과 회칙에 대한 진단방법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학생회칙	VS	선거시행세칙
제92조 최근 1년간의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자(단, 당해 연도 3월 당선자의 경우 당해 연도 11월 출마 가능)		58조 당선과 경선 모두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은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59조 투표율이 미달되었을 때 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는...(중략)...
		당선 후라도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선거관련 공공기관에 묻다

후보자재등록가능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대해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질문을 구했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시 되는지 정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바로 학교에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학교 내의 관련 구성원들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옳고 그름으로 결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선거와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역시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두 개의 법 조항이 내용 측면에서 충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위 법의 개념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하위 법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혜진 기자 dhgwls0424@hansung.ac.kr

법률전문가에게 묻다

문제가 되는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을 구했다. 변호사에 의하면 학생회칙 제16장 선거 98조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이 학생회칙의 하위규정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회칙의 문구만을 따르는 것은 좁은 해석이다. 학생회칙 제16장 선거 92조에 따라 최근 1년간의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자(단, 당해연도 3월 당선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 출마 가능)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선거시행세칙 제11장 59조에 따라 투표율이 미달되었을 때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학생회칙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회칙을 개정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사건의 발생을 예상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되어 재출마할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장 5조에 따르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의결로 해석을 확정해야한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후보자의 재출마에 동의한 것을 학교 측에서 '학생회칙이 선거시행세칙의 상위개념'을 이유로 후보자의 재출마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생후보 양 측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해 총학생회장이 장기간 공석이 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ac.kr

회칙과 세칙의 본질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회칙과 세칙의 개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 보궐선거 이후 후보자 등록 및 재선거를 두고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회칙과 세칙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진행되는지를 취재했다.

세칙과 회칙은 무엇인가
한성대학교 학칙 제12장 제46조(총학생회)에 따르면 "학생의 자율성에 입각한 자치활동의 신장과 전공분야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문연구 및 실전을 위하여 한성대학교 총학생회를 두며 학생회 운영규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개정안 것이 바로 학생회칙이다. 학생회칙에는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총대의원회 등의 자치기구의 지위와 업무 및 권한 등을 명시해 놓았다.

세칙은 으름이나 기본이 되는 규칙을 다시 자세하게 만든 규칙이다. 세칙은 감사시행세칙과 선거시행세칙으로 분류되는데 시행세칙의 각각의 목적은 명시해왔으나 회칙과 세칙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이번 재선거 회칙과 세칙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칙과 세칙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세칙과 회칙의 개정 방법
학칙 제17장 회칙개정안 제99조에서 제103조에는 회칙개정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공고가 명시되어있다.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발의,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본 회 의원의 1/10 이상의 발의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칙개정이 발의가 되면 총대의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그 후에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공포하는 방식으로 회칙이 개정된다.

현 회칙에는 세칙의 개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최치현 총대의장은 "세칙의 개정 방법은 회칙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어떻게 개정되나
이번 재선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학생회칙은 지난해 12월 made 人 제30대 전 총대의원회에서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전면 개정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에 대해 원정효 전 총대의장은 "이전 세칙에도 문제점이 있어 변경했는데 잘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개정 과정에 있어서 총대의원회만의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칙을 개정할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은 없다"며 "타대의 회칙과 세칙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논란을 두고 확대운영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를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치현 총대의원장은 "현재 학과 통폐합 논란을 예외주시하느라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상황이다. 이를 고쳐야 하는 것이 맞다"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hip0%@hansung.ac.kr

답론 없이 사라진 학생 자치기구들

존폐 위기인줄도 몰랐던 언론연합회, 야간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언론연합회, 야간총학생회	총여학생회장
2014년 12월 16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 의해 학생회칙을 개정하면서 삭제됨.	2011년 11월 14일 낙산의 메아리에 올라온 총여학생회 등록공고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사라짐.

작년 12월 22일이 낙산의 메아리에 [제30대 총대의원회] 회칙 개정공고 가 게시되었다. 2014년 12월 16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된 대의원총회에 의해 학생회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제11장 야간총학생회(이하 야총), 제14장 언론연합회가 회칙에서 삭제되었다. 야간총학생회가 없어진 이유에 원정효 전 총대의장은 "야간총학생회 후보 등록공고를 올려도 몇 년간 후보조차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야총의 역할이 '연등제' 개최 정도로 그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야총의 기능을 학생복지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연합회가 사라진 이유에 원정효 전 총대의장은 "본교 언론기관은 총장 산하의 프레스센터로 있어 학생 자치기구의 범주가 아니라 판단했고 몇 년간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연합회에는 회장이 있었다.

학생회칙 변경 부분 중 야총이 삭제되었음에도 제18장 선거 제101조(자격기준)에는 야총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 감사시행 세칙 제13조(감사대상기구) 부분에는 2011년 이후 후보등록공고도 올라오지 않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가 남아 있었다. 총여에 대해서 원정효 전 총대의장은 "총여는 이번 학칙개정 전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현재는

총여의 기능을 총학생회가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회칙 개정 오류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생겼다. 학생회칙을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차별 근절과 여학생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총여의 활동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존립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작년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여가 중앙운영위에 소속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끝에 반대 53%로 총여를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해 중앙대회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총여가 폐지되어 '성평등위원회'로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재편됐다. 경희대에서는 총여 폐지를 위한 총투표나 전학대회가 열리지는 않았으나, 총여 폐지를 요구하는 일인시위와 대자보가 붙어 총여 폐지에 대한 학내 논쟁이 일어났다.

본교와 마찬가지로 타대 역시 총여 선거가 자주 무산되거나 장기간 공석일 때가 많았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존폐를 논했던 타대와 달리 본교는 학생들과의 담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우리의 교육권을 짓밟지 마라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화난 학생들 거리로 나서...



▲ 4월 3일 항의행진 시작 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학생들이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 정부중합청사로 향하던 중 경찰이 항의행진을 막아 이에 불만을 표하는 모습.

전국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교를 개편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이 학생들의 눈이 진행되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개편이 진행되는 해당 학교 학생들은 1인 시위, 대규모 농성 등으로 학교에 불만을 표출한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불만을 묵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가 난 학생들이 대학 담장을 넘어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국에서 대학 구조개혁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 열려

4월 3일 오전 9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대학들의 자체 평가보고서 접수가 시작됐다. 인위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잇달아 열렸다. 경희대·연세대·한양대·단국대 총학생회와 중앙대 인문대 학생회는 이날 한국교육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문적 특성을 무시한 교육부 주관의 일방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전북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 학생들도 이날 오전 건대입구역에서 대학생 네트워크 모임 '모두의 대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의 힘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 성공회대, 한신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 소속 학생 300여 명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 구조조정 중단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국립대 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철회 ▲비리사학 퇴출 등을 요구하는 깃개빠빠(깃 개고 빠질 때 빠져) 집회를 진행했다.

대학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항의행진 진행되어

4월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수십 명의 청년이 모였다. 그들은 검은색의 옷을 입고 원형으로 둘러앉아 대학 구조개혁에 부딪힌 대학생의 표정을 종이 위에 그렸다.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항의행진을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다.

항의행진 제안자 강혜진(숭실대 4) 학생은 "학사관리지표에 의해 11월 22일 한국외대는 학기 시험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그 학기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임교원확보율지표에 의해 홍익대는 1학기 수강신청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개강 전에 시간강사 30명을 무더기 계약 해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시간표가 크게 변동되었습니다. 취업률지표에 의해 중앙대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 추진되었고 학교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대학들이 '난리'를 겪었던 배경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발의자의 발언이 끝나고 그들은 "우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마라"고 외치며 정부중합청사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을 하던 도중 경찰들이 대거 몰려와 그들의 행진을 방해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중합청사에 도착한 이들은 대학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서를 낭독했다. 이후 학생들은 항의서를 접어 정부중합청사를 향해 던졌다.

경찰들의 감시 속에서 그들은 다시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의 반대에 청와

대까지 갈 수 없어 학생들은 경복궁 앞에서 다시 항의서를 낭독했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서 조슬기(경기대 4)는 "경기대는 작년에 8개학과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없어 해당 학과는 15학번이 없습니다"라며 "대학은 취업률 위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을 작은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때문에 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라고 외쳤다.

자유발언시간이 끝나고 그들은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길바닥에 누워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어 그들은 "야만의 대학과 교육부는 우리의 교육권을 짓밟지마라!"고 외치며 울지 로입구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라며 이들을 응원해주었다. 항의행진은 을지로입구에서 '한대련'과 합쳐져 청계광장까지 계속되었다. 강혜진 학생은 "이번 행진을 통해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확히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속시원했다"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미 구조개혁은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 더 가속화되어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언론을 통해 한성대도 학교구조조정이 가속화 중이라고 들었다. 한성대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나는 순간 학교나 정부들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한성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본교에서도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학과 통·폐합이 이뤄지면 본교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우리 학과는 아니니까', '이번만 잘 해결하면 될거야'라는 근시안적 사고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학과 통·폐합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ac.kr



▲ 항의행진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의 모습.

살선동에서

수업시간에 맞춰 바쁘게 등교하다보면 문득 잊고 사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생활을 하는 이곳이 한성구 한성동이 아닌 성북구 살선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성대가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과 연계한 학과 자체인턴십

지식정보학과와 지역 도서관들이 협력해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사서 인턴십' 강좌와 '정보 전문가 인턴십' 강좌이다.

'사서 인턴십' 강좌는 3학년, '정보 전문가 인턴십' 강좌는 4학년을 대상으로 방학에 진행되고 있다. '사서 인턴십'은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정보 전문가 인턴십'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센터 및 기록관에서 실습하게 된다. 도서관과 자료원, 기록원 등 실습 기관은 교수들이 직접 섭외하는데 기관은 기관의 특수성, 학생겨주지, 실습기관까지의 교통편 등이 감안되어 결정된다.

인턴십 참가기간은 하루 8시간씩 4주간 총 160시간이다. 인턴십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매일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지식정보학부의 교수들은 중간 방문을 해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사서인턴십'에서 학생들은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고 도서관 이용자

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업무에 대해 배운다. '정보 전문가 인턴십'에서 학생들은 사료의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사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배운다. '정보 전문가 인턴십'은 지난 겨울 아리랑정보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관 사업회사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등 5개의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기관마다 특화된 분야에 따라 배우는 업무에 차이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에서는 '정보 전문가 인턴십'을 진행한 학생은 서고전수조사 작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할 때 사용했던 플랜카드와 운동가의 옷, 신발, 수의, 헬서 등을 관리 한다.

지난 겨울방학에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원'에서 인턴십을 진행한 박지수(지정 4) 학생은 "음악, 미술, 회귀자료 같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인턴십을 통해 실습실 컴퓨터로 몇 번 두들겨 보기만 했던 MARC와 수업시간에서 배



▲ 지난 겨울방학에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원'에서 '정보전문가 인턴십'에 참여한 남민정(지정 3), 박민정(지정 3)학생의 모습.

웠던 이론적인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박지영(지식정보학부)교수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 현장에서

실무를 완벽히 소화하기는 어렵다"며 "실습을 통해 인간관계와 자기관리와 같이 이론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유진 기자 lj32108@hansung.ac.kr

정치

자유, 정치, 나

자유란 무엇인가?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자유란 공기와 같다고 답하겠다. 공기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기가 부족하거나 오염될 경우 사람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비로소 그 가치를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 상황보다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유의 가치를 말할 때가 많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의 가치가 중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공익에 맞게 권력을 선용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망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고 싶은 욕망도 함께 지닌 존재다.

자유 개념은 확장적이다. 나의 자유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평등한 권리로서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자유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권리로서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 더 나아가 생태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유엔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1세대 인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을 제2세대 인권으로, 평화, 의사소통, 인류 공동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연대의 권리를 제3세대 인권이라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want'라는 영어 단어는 동사로 쓰이면 '원하다'를 뜻하지만, 명사일 때는 '결핍'을 의미한다. '위대한 부두로 가는 길'을 보면, 조지 오웰이 한 광부에게 언제부터 그 지역에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

는지 묻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부터"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문제를 자각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바를 쫓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온 자유의 역사 가 아닐 수 없다. 사회의 규모가 커져 각자의 선의만으로 서로의 자유를 보호해 줄 수 없게 되면, 자유는 정치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는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 집단 간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을 피할 수 없다. 이익과 영정을 둘러싸고 개인과 개인, 나아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자유의 운명은 해당 사회에서 그런 갈등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유는 갈등 조정과 관련된 정치의 문제와 결합된다.

자유주의 혁명을 이끈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타자의 의지 또는 권위에 종속됨이 없이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심고 확장해 온 대기업 삼성 일가가 누리는 자유와, 그 계열사인 삼성 반도체에 다니면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나 그 유가족이 누리는 자유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역대 출연료가 당연시되는 소수의 연예인과 굶어 죽은 시나리오 작가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는 진정한 자유로운가?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다 못해 자살과 범죄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날이 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사회인가? 강자의 자유, 부유한 자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그건 야만이다. 자유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면, 이는 만인의 평등한 자유라는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그럴 때에만 자유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발로 찬사받을 수 있다.

양극화된 자유의 분단선을 넘어 만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이 서있는 곳에서 자유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유인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만인의 평등한 자유를 위해 싸워 줄 초인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부단히 흔들려 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영화 『화차』 변영주 감독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변감독은 다음과 같이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을 소개했다. "예술이란, 영화란, 인생이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조그만 틈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뚫어내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그런 '나'가 되면 좋겠다. 원래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제 아무리 제약과 한계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벽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 그 '나'들이 만들어 내는 크고 작은 균열들 사이로 자유의 공기가 넘쳐 나길 바란다. 이 글이 그 균열을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 자유인이 많아질수록 벽을 무너뜨리는 시간도 더욱더 당겨지리라는 소박한 마음과 함께.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

제 24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 저자와의 만남 |



서유림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는 예술의 도시로 변모한 피렌체와 그 이면의 상인들 르네상스 시대하면 예술가를 떠올리는데, 당시의 예술가를 뒤에는 피렌체를 무대로 새로운 지배질서와 세상을 꿈꾼 상인들이 있었다. 피렌체의 상인 메디치 가문과 르네상스 예술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을 들여다본다.

저자와의 만남

- 저자 : 성제환 (원광대 경제학과 교수)
- 강연 주제 :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 메디치 가문의 돈과 욕망
- 일시 : 2015. 5. 14(목) 15:00 ~ 17:00
- 장소 : 미래관 DLC (B1)
- 진행 : 1부 _ 다독상 시상
2부 _ 저자와의 만남 강연 / 저서 증정 / 저자 사인회

※ 지역주민도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마이(애매)’한 나라 일본의 ‘화(和)’



교단에서

이재석 교수
(역사문화학부)

여러분들은 ‘화(和)’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먼저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아마도 ‘화목함’, ‘화합’ 같은 이미지가 아닐까? 원래 ‘화(和)’가 지닌 이러한 의미는 같은 한자권인 일본이라고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다른 차원의 ‘화(和)’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화(和)’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7세기 초 소위 소토쿠(聖德) 태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헌법17조의 제1조 <화(和)를 중히 여기라>는 문구일 것이다. 여기서의 ‘화(和)’는 화목, 화합의 ‘화’이다. 그런데 8세기가 되면 일본=야마토를 나타내는 말로서 ‘대화(大和)’가 탄생했다. 원래 ‘야마토’ 지역 명칭이었던 ‘대화(大倭)’를 ‘대화(大和)’로 표기하기 시작한 탓이다. 그 결과 ‘화(和)’는 곧 ‘화(倭)’이자 ‘야마토’를 가리키게 되었다. 일본 전체를 상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근대에는 이 ‘야마토’ 개념의 ‘화(和)’가 넘쳐났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본인은 ‘화(和)’를 보면 ‘헤이와(平和)’의 ‘화(和)’를 많이 연상한다고 한다. 하기가 지금의 아베 신조 정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수상식 기조 강연에서 ‘아이마이(애매)한 일본의 나’를 이야기 하였는데, 필자는 이 ‘헤이와’ 또한 ‘아이마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히로시마에 있던 청일전쟁 승리 기념탑은 1945년 일본이 패전하자 ‘평화의 탑’으로 둔갑하였다. 1942년 세계만방에 뻗어가는 일본의 국세(國勢)를 표현하고자 일본 왕실의 발상지 미야자키에 세웠던 ‘팔공일우탑’은 패전 후 느닷없이 ‘평화의 탑’이 되었고 그 주변 공간은 ‘평화의 공원’이 되어버렸다. 일본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평화기념관 또한 전쟁의 피해자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게 침략과 그에 대한 반성의 표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과거 중국을 침략하면서 이적 또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강변한 것이 일본이다. 실로 ‘아이마이’하기 그지없다.

일본의 ‘헤이와’가 과연 우리의 ‘평화’와 같은 말일까? 그리고 그것이 영어의 ‘peace’와도 동일한 개념일까? 말이 비슷하다고 하여 뜻까지 비슷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의 한일관계를 살얼음판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웃과 불화(不和)하면서 내걸고 있는 것이 ‘평화주의’인만큼 일본의 ‘헤이와’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주목거리다.

‘아이마이(애매)’한 나라 일본의 ‘화(和)’

일본의 ‘헤이와’가 과연 우리의 ‘평화’와 같은 말일까? 그리고 그것이 영어의 ‘peace’와도 동일한 개념일까? 말이 비슷하다고 하여 뜻까지 비슷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의 한일관계를 살얼음판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웃과 불화(不和)하면서 내걸고 있는 것이 ‘평화주의’인만큼 일본의 ‘헤이와’ 행보는 계속 지켜봐야 할 주목거리다.

매너가 한성을 만든다



기자수첩

오혜진 기자
(한국어문 2)

‘Manners maketh man(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속 스파이 해리의 대사이다. 이는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등장해 주인공을 위협하는 동네 불량배들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매너는 예의를 뜻하는데 즉, 세련된 교양이나 예절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못해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에 대학 본부는 본교 학생들에게 학과 통·폐합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열었다. 갑작스러운 학과 통·폐합 소식이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가장 묻고자 했던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측에서 만드는 것이지 교육 수요자가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매너’를 무시한 행동인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제정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학생들에게 현 사안을 알리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만든 교육과정이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학교 측은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매너’마저 갖추지 못한 교육자들의 결정을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

한편, 학생들은 학교가 지키지 않은 ‘매너’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이다. 영화 킹스맨에

서는 ‘매너’를 지키지 않은 동네 불량배들을 향해 해리가 폭력을 행하여 진정한 매너에 대해 알려준다. 본교의 학생들도 학교에 대해 제자리에서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해리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동네 불량배들이 수트를 단정하게 입은 샌님같은 해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학교 또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권한을 내세워 우리를 샌님 취급했다. 이에 대해 사회의 흐름에 맞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 진정한 ‘매너’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비록 해리의 가르침을 통해 ‘매너’를 갖춘 주인공처럼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부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가 지키지 않은 ‘매너’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이다. 영화 킹스맨에

2차 간담회, 그 날



낙산에 올라

윤민섭
(한국어문 4)

그 날 소강당에서 누군가가 물었죠. 이건 국문학에 대한 사항선고가 아니냐고. 그러자 말씀하셨지요. 아주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고 또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아마 ‘한국어문학부 학생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는 누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문학부의 구성원이자 본 학부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미안할 거 없습니다. 사항선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자면 이미 반죽음 상태던 국문학에 호흡이 때어버리고 ‘2015년 4월 2일 18시부로 한자 사방’이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므로 사실 사항선고보다는 사방선고가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타 과와 통합된다는 최소한 장기기준은 한 셈일까요.

나는 우리 과가 왜 통합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까 더 모르겠는 겁니다. 그 날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그저 공허하게 멍들다가 결국에는 ‘전문성’이라는 전가의 보도 앞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교수진의 판

단이 더 나을 것이다... 두 과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문학적 소양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물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의견이 항상 맞겠지요. 근데 그 좋은 거 예뻐 왜 안 하셨어요. 좋은 점밖에 없던데, 또한 그 대단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님들의 40퍼센트 이상 이 여전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좋은 점밖에 없던데, 이 좋은 걸 그동안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이따위 일방적 의사소통이 어찌 지식의 상아탑 안에서 자행될 수 있단 말인가요. 이제 이 상아탑이 진짜 상아가 아닌, 속이 텅 빈 상아색 플라스틱 탑과도 같다는 이질감이 들어서 나는 문득 슬픔니다. 무척 슬픔니다.

물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진정 우리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날 간담회에서 허탈한 무력감을 느껴면서 나는 작년 이맘때쯤 슬픈 바다에 가라앉은 슬픈 배의 슬픈 얼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

니다. ‘가만히 있으라!’ 배가 가라앉던 때 선내 방송에 흘러나온 말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던 그 비열한 무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부르르 떨립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측의 행태가 그와 같습니다. 내 청춘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한 학교가 가라앉다 못해 사라지는 상황인데 학생보고 너는 전문성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미안합니다. 선배들에게, 당신들의 한국어문학부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새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내 자랑스러운 한국어문학부를 오롯이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민발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안하긴 한가요?

· 사 설 ·

인문학과 대학 구조개혁

대학 구조개혁의 결과중 하나는 인문학 분야의 정원 감축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열별 변화 중 오직 인문계열만 입학정원과 학과 수 모두가 감소했다. 물론 이는 정부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대학 구조개혁의 뜻하지 않은 결과는 인문학의 고사이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대학이 진리 탐구의 장소가 아니라 취업준비기관이라는 것이 이미 사회적 통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편견을 가속화하는 주체가 정부와 대학이라면 씁쓸하다. 많은 학교의 구조개혁의 표본이 되는 서울 소재 모 대학은 2016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것이다. 학교의 관계자는 “학생희망과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해 전공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의 정원 감축과 이어져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정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대학과정을 마치라고 한다던 그 학생은 다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 인사

의 말에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인문학”이라는 말은 “취업”, “국가 경쟁력”과 반대의 의미를 지니게 된 듯하다.

물론 공학 기술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학에 기반을 둔 기업의 가치가 당장의 시장에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얼마 전 한 기업 총수가 열린 인문학 콘서트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외치며 작은 스마트 폰 안에 인문학이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인문학의 가치가 기업과 공학에 쓰이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곱씹어 볼 것이 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기술과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업조차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왜 삶을 다루는 인문학이 삶의 현장인 일차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지 분석해보아야 한다. 취업을 저조라고 부르는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수요의 감소가 혹시 역으로 정부와 대학들의 지원 포기에 있지 않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여전히 인문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 삼 학 송 ·

우리는 무엇을 전제(前提)로 하나

지난 4월 2일 학과 통·폐합을 두고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대표들만 참석해 언제 진행됐는지는 결과가 공지된 후이나 비로소 알았던 1차 간담회와 달리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청의관 소강당으로 몰렸다. 일반 학생들과 학교와의 간담회, 어쩌면 대학 사회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일 수 있겠다. 이러한 ‘민주적인’ 자리에서 우리 확인한 것은 무엇일까?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다분히 비민주적이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은 학과 통·폐합 리스트에 오른 학과 소속 학생들이었다. 그렇기에 질의응답에서 주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각자 해당학과에 대한 사랑을 몰았다. 그리고 어쩌면 정치적인, 어쩌면 이번 간담회와 상관이 없는 질문들도 던져졌다. ‘제가 듣는 수 업이 보장되나요?’, ‘지금 당장 폐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요?’, ‘총학생회가 건설되지 않는 것은 학교의 의도인가요?’, ‘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 학생대표를 불러줬나?’, ‘답답한 청의관 소강당을 나서며 이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다분히 비민주적이다’

간담회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의 불꽃이 피어오르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몇몇 학생들은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학교

사정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그에 대한 답으로 다른 학교들은 일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지금까지 공문화 된 것이라며 학생회로의 책임 전가가 아닌 개별 학생들 역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나마 이는 학과 통·폐합을 마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의견들이다. 학과 통·폐합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이었으리라. 서로 뜻을 함께해야 할 학생들이 행동을 미루는 순간 이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다분히 비협조적이다

2차 간담회, 학과 통·폐합 간담회에서 학교는 무엇을 전제하냐? 그리고 학생들은 무엇을 전제하냐? 학교와 학생 모두 학과 통·폐합은 진행된다’를 전제로 했다. 그렇기에 2차 간담회에서는 학과 통·폐합의 ‘당위’가 아닌 학과 통·폐합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우리는 과연 이날 진정한 대학의 의미를 생각하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을까? 성적세척 변경, 정원 감축, 재수감 제한 등 그동안의 선례들 때문에 학과 통·폐합 역시 당연히 받아들였을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불꽃이 피어오르기는 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몇몇 학생들은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학교

<한성대 편집국장>

통폐합, 이렇게 싸우면 필히 패한다



낙산에 올라

이광호
(한국어문 2)

통·폐합 논란이 시작되고 제법 긴 시간이 지났다. 통·폐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통·폐합 반대 서명을 진행 중이며, 3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질 간담회에서 우리의 질문이 ‘국문과와 지정과는 어떤 기준으로 통합 된 겁니까?’, ‘취업률만으로 평가를 해도 됩니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 학교가 통·폐합을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다.

통·폐합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리 학교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연,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 학교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에서 노력하지 않은 대학들은 A등급 자체를 받을 수 없다. 특히 C등급에 위치한 학교는 1~2점 차이로 정부지원이 제한되는 D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점수에 눈을 돌리게 된다. 가장 손쉽게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성적분포의 적절성’이다. 이 지수는 $1 - [(0.4 \times A \text{ 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times B \text{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times C \text{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로 계산하기 때문에 A 학점을 받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결국 2013년 학교의 일반적인 성적평가 기준 변경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이로 인한 희생은 모두 학생들이 감당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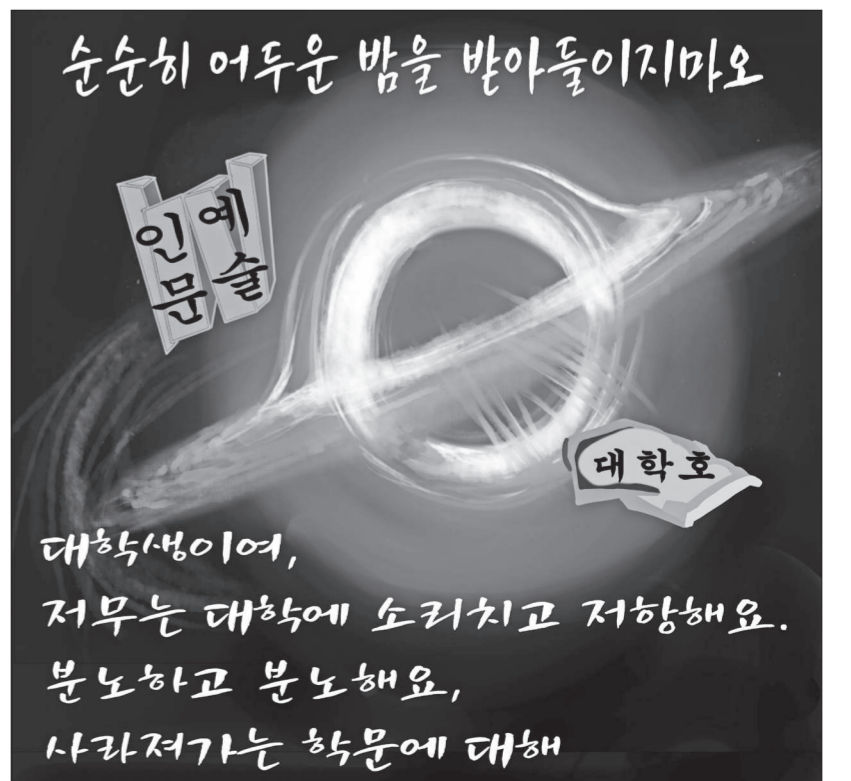
2013년 12월 10일 교무처장의 이름으로 세칙 변경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시행해 가겠다고 말했던 본교는, 2015년 3월 1일 학부(과)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을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 냈다. 정원조정이라 함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증감, 모집단위 신설, 통합 및 폐지의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이 되는 자체평가 점수를 보면 취업률과 중도탈락률 등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대내외에서 비교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기금 실적이나 전임교원 강의 비율 등의 점수는

대내에서만 비교하여 점수를 매긴다. 또한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 평가와는 다르게 취업률과 중도탈락률에 많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고 또 다시 학생들을 희생시키려는 수법으로써는 보이지 않는다.

학교는 성적 세척 변경 이후 또 다시 통·폐합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점수를 얻으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다. 하지만 근본을 해결하지 못 한 임시방편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제 우리는 통·폐합에 대해 물을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취업률과 통·폐합과는 관련이 없다는 본교의 주장이 사실인 아니든 상관 없다. 통·폐합과 취업률에 대해 묻는 우리는 학교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 학교가 만든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일부 과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다음번엔 누구의 목을 조를지 모른다. 언제까지 학교를 위해 희생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낙산만평

한지선(매디 2)



아주 사적인 시간 루나폴 스튜디오 이루나 원장을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선정적인 춤이 아닌 관능적인 폴댄스”

어느 날 우연히 폴댄스 영상에 보고 홀린 듯이 폴댄스에 대해 검색했다. 기자는 단 몇 시간 만에 폴댄스 영상을 섭렵했다. 폴댄스는 금속의 폴(봉)에 의지해 원심력을 이용, 몸을 그려 회전하거나 고난이도의 다양한 기술을 소화하며 예술적인 안무로 만들어낸 춤이다. 어느 새 배운 적도 없는 폴댄스 기술 이름을 줄줄 외우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기자는 차마 이 저질 체력으로 폴댄스 학원을 찾아가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이번 사람사에서는 코너 기획에 맞게 사심을 가득 담았다. 나의 로망 폴댄스, 루나폴 스튜디오의 이루나 원장과 만나 인터뷰했다. 루나폴 스튜디오 안은 수업이 한창이었다. 폴에 매달려 동작을 취하는 회원들을 부러움 가득한 눈길로 보면서 이루나 원장과의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폴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스무 살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력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찾게 되었죠. 처음엔 외국 영상을 보고 폴댄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폴댄스 학원을 찾기 어려워 국내에선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폴댄스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일본의 폴댄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어요. 노력 끝에 일본에서 폴댄스를 배울 수 있었어요. 열흘 동안 호텔에 묵으면서 폴댄스를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배웠던 기술을 연습했어요. 2010년에 폴피트니스 기술을 이수하고, 2년 전 루나폴 스튜디오를 열게 됐습니다.

폴댄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뭔가요?

바로 성취감입니다. 새로운 동작

을 성공한 뒤 느끼는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단순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은 지루하죠. 그런데 매번 새로운 동작, 기술들을 시도하는 폴댄스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골프 같은 운동은 스윙자세를 완벽히 소화해야하지만, 폴댄스는 한 동작이 어려워 다른 동작을 시도하면 됩니다. 하다보면 새로운 동작을 성공하려는 오기가 생겨요. 또한 폴댄스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답니다. 근력을 키울 수 있고, 쉽게 빠지지 않는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근살을 뺄 수 있어요. 다른 운동보다 요요도 덜 하구요.

폴댄스의 배경이나 유래는 무엇인가요?

원래 미국 건설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춤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스트리퍼가 추는 춤으로 유명해졌습니다. 2000년도 전에는 스트립 클럽에서 많이 하던 것으로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폴댄스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외국은 아마추어와 프로급으로 나

뉘어 세계적 폴댄스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08년 부터 차츰 알려지기 시작해 현재 대중 매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도 폴댄스 학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댄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폴댄서들이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나폴 스튜디오만 보아도 선정적인 이미지는 전혀 없죠. 폴댄스 교육을 받는 학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흔히 클럽에서 볼 수 있는 봉은 폴댄스에서 사용되는 폴과는 다릅니다. 폴댄스 처럼 매달리거나 하는 기술은 할 수 없거든요. 클럽에선 보통 호느적거리 는 웨이브를 추게죠?

최근 연예인들이 폴댄스를 안무로 하면서 폴댄스가 대중에게도 유명해 진 것 같습니다.

에프티 스콜이나 피에스타, 가인 등 연예인들이 폴댄스를 배우고 안무하면서 소화해 대중에게 폴댄스를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결혼 했어요’나 개그우먼들이 폴댄스를 배우는 방송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이나 스포츠로서의 장점들이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폴댄스 대회가 있나요? 앞으로의 폴댄스 강사이자 폴댄서로서 계획이 있다면?

누구나 폴댄스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회원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50대 직장인도 있습니다. 남자 회원도 있냐고요? 지금 저쪽에서 폴을 잡고 계시는 남자분도 저희 회원이에요. 처음 폴댄스를 배우려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뭘치인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력이 부족해서 봉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몸치이신 분들도 요령을 익히면 하실 수 있고, 폴에 매달리기 전에 기초 근력운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운동이나 스포츠로서의 장점들이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폴에 매달리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얼마나 연습해야 할 수 있나요?

어떤 운동이든 익숙해지기까지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폴댄스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서 한 두 번 수업을 듣고 본인하고 안 맞으면 다시 오질 않아요. 한 번의 수업으로도 ‘아 이게 이런 운동이구나’하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기초체력이 부족한 회원들은 아무래도 기초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폴을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 첫 날부터 비교적 쉬운 스텝 동작을 배우면서 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2-3주면 폴에 매달리는 법도 배우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한 수업당만 3가지 이상의 다양한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섹시한 안무를 선호하는 여성분들이 제즈폴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폴댄스 대회가 있나요?

아직까지 국내 폴댄서들의 실력이 외국만큼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폴댄스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대회에서도 한국 폴댄서들이 선수로 활약하길 바랍니다. 폴댄스는 올림픽 종목으로 논의 중이고, 저 또한 ASIA-PACIFIC POLE ACROBATIC ASSOCIATION 아시아 협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서의 폴댄스의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벌써 아이들을 폴댄스 주니어 선수로 키우려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 회원들 중에 50대이신 회원분이 있어요. 이분이 최령 폴댄스 선수로 활약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답니다. 외국에선 이미 60대의 폴댄서가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 다. 나이에 불구하고 열정적인 분을 보면 지레 운동을 포기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폴에 매달리는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얼마나 연습해야 할 수 있나요?

어떤 운동이든 익숙해지기까지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폴댄스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서 한 두 번 수업을 듣고 본인하고 안 맞으면 다시 오질 않아요. 한 번의 수업으로도 ‘아 이게 이런 운동이구나’하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기초체력이 부족한 회원들은 아무래도 기초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폴을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 첫 날부터 비교적 쉬운 스텝 동작을 배우면서 폴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2-3주면 폴에 매달리는 법도 배우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한 수업당만 3가지 이상의 다양한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폴댄스 대회가 있나요?

아직까지 국내 폴댄서들의 실력이 외국만큼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폴댄스 대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인지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대회에서도 한국 폴댄서들이 선수로 활약하길 바랍니다. 폴댄스는 올림픽 종목으로 논의 중이고, 저 또한 ASIA-PACIFIC POLE ACROBATIC ASSOCIATION 아시아 협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서의 폴댄스의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벌써 아이들을 폴댄스 주니어 선수로 키우려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또 회원들 중에 50대이신 회원분이 있어요. 이분이 최령 폴댄스 선수로 활약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답니다. 외국에선 이미 60대의 폴댄서가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 다. 나이에 불구하고 열정적인 분을 보면 지레 운동을 포기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만나러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상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공부, 연애, 봉사까지 3박자 모두 완벽한 그녀, 벌샤

- 이름: 벌샤 (Barsha)
- 국적: 터키
- 나이: 23살
- 학과: 경영학부

저는 어린 시절 터키에서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고 도와 줘야 한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은연중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봉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지금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강의를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때마다 핸드폰 사전을 켜서 단어를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재밌어요. 선배들이 많이 도와 주고 있거든요.

한국 문화 중에서 무엇이 낯설었나요?

저는 처음에 나이와 성별로 나누지는 호칭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팔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같은 학교를 다니면 다 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도 오빠,

형, 누나로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익숙하지만 선배들한테 인사 하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졸업 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은행관련 일이나 사회단체 쪽으로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비쁜 대학생활과 함께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봉사까지 하고 있는 벌샤.

미소를 잃지 않으며 공부와 연애 그리고 봉사까지 해내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던 대학생활이 아닐까 싶다.



▲ 네팔 전통의상을 입고있는 벌샤와 그녀의 남자친구 프리모드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대 2)



오늘 점심은 뭐드시나요?

◆ 학술 기획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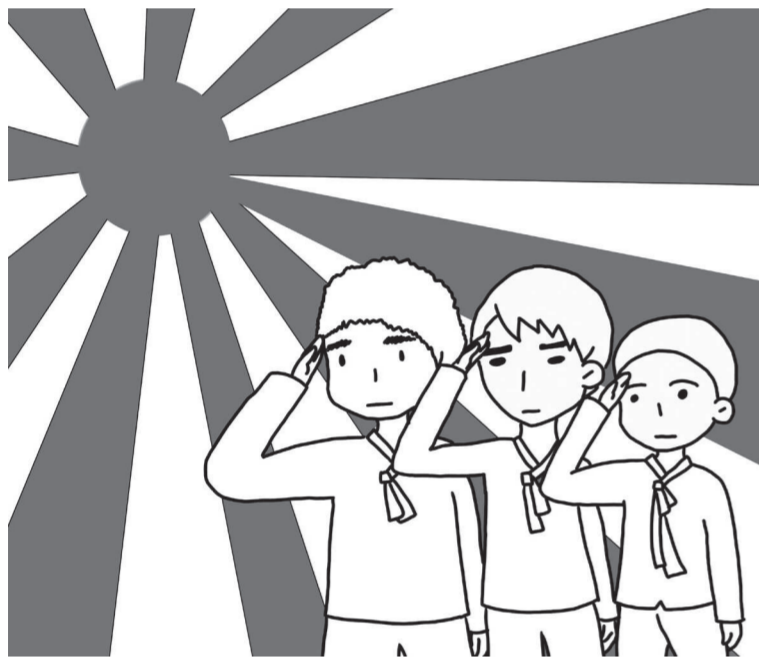
부재와 억압

〈부재와 억압의 역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에 초점을 맞춘 학술 기획연재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부재와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재와 억압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연재 기획>

-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
- 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 했나
- 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 ④ 종교의 억압 -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 ⑤ 묶여버린 펜, 빼앗긴 권리, 언론의 억압

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빼앗긴 들에는 역사도 오지 않는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체 신채호 선생의 격언이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말이다.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의 지배 체제 하에 두기 위해 노골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교육정책이 이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은 대한제국 학제 전반을 장악해 학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주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일본은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한국인의 노예화를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허용되는 교육 정책인 ‘조선 교육령’을 1911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전 기간에 걸쳐 시행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한 ‘총성스러운 신민’ 육성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조선총독부는 헌병경찰을 이용한 무단통치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인을 총칼로 통제했다. 이 시기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해 총성스럽고 순종적인 식민지인 육성에 바탕을 둔 위민화 교육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동화주의를 추구하여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진행했으며 교과서 또한 일본어로 편찬되었다. 학교 명칭도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 중학교와 다르게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라 칭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차별교육을 실시했다.

이 시기에는 보통학교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역사 과목이 없다. 대신 ‘일어독본’을 수정해서 만든 ‘국어독본’ 교재를 통해 역사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1학년 때는 일장기 그림을 배우는 정도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황이나 천황에 충성을 바친 인물 등

을 배운다. 이는 일본 천황에 대한 고마움을 주입해 학생들을 ‘충량한 신민’으로 육성하려고 한 것이다.

왜곡된 한국사를 이용해 식민지 정책 정당화

1919년 3·1 운동의 민족주의 저항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본은 국제적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 소위 ‘문화통치’를 시행했다. 이에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에 준거하여 보통학교 수업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 사범학교 설립 등 일본과의 교육적 차이를 제거한다고 했지만 결국 동화주의 교육체제 아래에 숨겨진 기만적인 차별주의였다.

3·1 독립운동 이후 총독부 교육 당국자들은 한국사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쳐 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육을 통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때 사용한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는 일제강점기 최초의 한국사 교재이다. 총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상고시대부터 현대의 총독정치까지 한국사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후 192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보통학교 국사’ 상·하권은 일본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일본사 연대에 맞게 한국사를 삽입한 형식이었다. 이는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보다 더욱 간략한 형태로 한국사가 독립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지 못하고 일본사 주제에 종속된 것이다. 또한 위대한 한국 역사가 하나 교과서에 극명하게 대비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당연시 여기도록 했다.

제3·4차 조선교육령, 황국신민화 정책 강화해

중일전쟁 발발부터 일본의 패망까지 조선총독부는 민족말살통치를 실

행했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고 대일본제국의 황국 신민이라는 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황국신민화정책을 펼쳤다. 또한, 일제는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더욱 철저하게 형성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식민통치체제는 전신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정책도 크게 변화했다. 특히 역사교육은 이러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민화 정책은 제3차 조선교육령과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점차 강화되었다. 먼저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일본과 동일한 학제가 적용되었다. 보통학교는 소학교고,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했다. 둘째, 4년제 보통학교는 6년제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보급과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지금까지 필수였던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었다. 또한, 국사(일본사)를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배우게 했으며 교과서도 각각 다른 종류를 사용했다.

한편,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국민을 군사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전신교육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인 학교를 병영화하고, 교육체제를 군사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1943년 4월에 시행된 제4차 조선교육령은 이러한 전신체제의 기본이 된 교육법이다.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조선어 과목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한, 국사(일본사)를 ‘황국사’로 바꾸고 고학년에서 한 번만 배우게 했다.

황국신민화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한 역사교육

강화된 황국신민화 정책의 흐름에 따른 역사교육의 주요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일본사교육 강화와 한국사 배제이다. ‘소학교 규정’을 살펴보면 역사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황국신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의 변천에 관한 사적의 대요도 알게 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인

해 한국사를 배제하고 일본사만 교육하게 되었다.

둘째, 4년제 심상소학교에 국사지리과목을 신설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4년제 심상소학교에 국사지리과목을 설치해 4학년 때 매주 2시간씩 수업을 실시했다. 이는 국민정신의 도야에 일조하며 선량한 황국민으로 육성되기 위해 필요한 국사수업이 국사지리과의 설치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단일화 정책과 독자적인 역사 교과서 편찬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제가 일원화되면서 교과서에도 단일화 정책이 실시되어 일본 본국과 같은 수준 및 내용의 교과서를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교과서를 편찬했다. 이는 한국사교육을 민족의식과 국민의식 형성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와

결국 일제의 교육정책에 따라 조선이라는 교편은 부러졌고 교실에 남은 한국인 아이들은 황국신민으로서 육성되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후, 왜곡되고 편향된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올바른 민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사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미군정기 시기에 역사 과목은 독자적인 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사를 독립 교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부러졌던 교편을 다시 붙이기 위한 노력 끝에 현재 역사 교육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오혜진 기자 dhgwls0424@hansung.ac.kr



빈정거리는 사람은 뇌에 손상을 받아 치매에 걸리기 쉽다



“재는 왜 저래더라” 상대방의 단점만 콧속 찌어가며 말하는 친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가 좋다고 말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래도 투덜, 저래도 투덜대는 친구의 입을 막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원대학교의 Anna-Maija Tolppanen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평균 연령 71세인 1449명을 대상으로 치매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테스트는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이유와 비판도를 측정하는 질

문으로 구성됐다. 질문의 내용은 “출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람을 신용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위해서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테스트 결과 ‘사람은 이기적인 관심에만 움직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굳게 믿는’ 피험자는 다른 피험자보다 약 3배나 치매에 걸릴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등 치매에 영향을 주는 모

든 요인을 조정한 후의 결과이다.

Anna-Maija Tolppanen 박사는 “빈정거리는 성격과 치매를 연결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개인의 성격과 세상의 견해가 그 사람의 건강, 심지어 뇌에까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친구들에게 투덜이로 소문나 있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자.

최혜정 기자 hippo96@hansung.ac.kr

美生 여걸들의 이야기

세자빈 봉씨와 동성애



성에 관한 한 조선시대는 억압과 금지의 시대였다. 특히 동성애는 음양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태적인 성행위라 하여 금기시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유교 관념 때문에 노골적인 동성애는 없었지만, 여성들의 재혼이 금지되고 정절이 부각되다 보니 성적 억압에 따른 후천적인 동성애가 간혹 있었다. 말하자면, 과부나 궁녀같이 일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야 할 신세에 처한 여성들이 풀지 못한 성욕발산의 일종으로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시대 동성애 사건 중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 문종의 부인이었던 세자빈 봉씨의 동성애 사건이다. 봉씨는 문종이 세자시절이었을 때 맞이한 둘째부인이었다. 문종의 첫 번째 부인은 요상한 방술 사건으로 이혼당하여 폐출되었다. 문종이 첫 부인과 혼례를 치른 나이는 14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탓인지 문종은 첫째 부인을 멀리했고, 이후 다시 재혼한 봉씨 부인마저도 멀리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세자빈 봉씨는 결국 외로

움에 못 이겨 궁궐 여종인 소쌍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일은 금기야 시아버지인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너희들이 정말 함께 동침을 했느냐?”

“지난해 동짓날에 세자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방문 밖에 있었습니다. 빈께서 저에게 같이 동침하기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빈께서 옥박치르므로 마저못하여 옷을 한 번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벗기고 강제로 들어와 함께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세종은 평소 순종적이지 않고 자기주장 강한 며느리 봉씨가 잘못을 저질러도 눈감아 주려는 너그러운 시아버지였다. 봉씨가 마음대로 술을 먹어도, 읽으라는 책을 읽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러나 궁궐 여종인 소쌍과 동성애를 벌이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세종은 마침내 봉씨를

폐출시키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 무척 고민하였다. 이미 한 번 첫째 며느리를 내쫓은 경험이 있었던 세종으로는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를 어찌 다스리겠는가 하는 죄책감이 앞섰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궁궐에서 쫓겨 난 세자빈 봉씨가 집에 오자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자기 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부친인 불어는 딸을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나중에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전해들은 세종은 눈물을 흘렸다.

세자빈 봉씨의 탈선은 과연 그녀만의 잘못이었을까? 폐쇄된 궁중에서 자칫하면 청춘을 덧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여성들 사이에 성적인 탈선이 일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었음을 우리는 세자빈 봉씨 사건을 통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학예사

e-book 속에서 사랑은 깊어진다

일반도서 로맨스 무협·판타지

오늘의 책

- 1207로의 사랑 (구매 3,000원)
- 꽃없는 두견 (구매 3,000원)
- 뉴욕 플레이트 (구매 4,000원)
- 크리스마스의 그대 (구매 4,000원)
- 로미(羅美)(무식재판) (구매 1,250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탄생한다! 비밀의 고서화를 둘러싼 어드벤처 로맨스! 이프영 신구연애 (일사판권)

이번주 최고 구매액 적으면 잉여생활 인테리어 필수품 선물! 당신의 일상에 일상정지 버튼!

▲ 지난 4월 10일 교보문고 e-book 로맨스 소설 분야 오늘의 책, 19금소설이 3개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 새벽 A양은 잠들 수가 없었다. 바로 그녀의 은밀한 취미 때문. 그녀의 남모름 취미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로맨스 소설을 읽는 것이다. 한때 웹소설 연재 사이트 '조아라'의 로맨스 소설을 모두 섭렵하던 A양은 이제는 아예 e-book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다. 19금 소설이 제한적인 웹소설 플랫폼보다 e-book에선 19금 로맨스 소설을 단말기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 스마트폰으로 로맨스 소설을 읽기 위해 대형서점 e-book 어플을 다운받았을 때를 회상했다. 책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자 로맨스소설 대부분 책표지를 볼 수 없었다. 19금,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기 때문이다. A양은 출판사 성인인증을 했다.

e-book으로 언제 어디서나 19금 탐독 가능해

전자책이 없던 옛날에는 로맨스가 없었다. 그때도 로맨스 소설은 못 소녀들의, 여성들의 기쁨을 설레게 하였다. 요즘은 거기에 더 진화했을 뿐. 독자들은 이제 볼 꺼진 방안에서도 로맨스 소설을 볼 수 있다. 남들에게 들릴 걱정이 없으니 주인공들의 사랑은 좀 더 적극적이다.

교보문고의 4월 첫째 주 e-book 장르소설 분야 베스트셀러는 10위까지 단 한권을 제외하고 모두 19금 로맨스 소설이 차지했다. 다른 대형서점의 e-book 로맨스 소설 분야 역시 대부분 19금이 순위를 차지했다. e-book에서 유독 19금 로맨스가 주목을 이루는 것은 왜일까. 전자책은 적나라한 제목이나 표지를 노출하지 않고도 단말기를 통해 장소에도 구매받지 않고 읽을 수 있다. 교보문고의 디지털영업팀 로맨스 분야 담당자 이소연 MD는 "한국 사회는 유교문화권이라 성이나 에로틱에 관해 보수적인 태도가 지배적이고, 특히 성애와 에로틱에 대한 여성의 니즈는 밖으로 드러내 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속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로맨스 e-Book은 여성의 조심스러운 니즈를 정확히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네이버 웹소설같은 플랫폼에서는 자체 정책에 따라 19금 도서의 노출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체 로맨스 소설 시장의 주요 매출이 19금 로맨스 소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전자책 시장의 중심이 된 로맨스 소설

교보문고가 지난 해 발표한 분야별 전자책 판매권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로맨스, 무협, 판타지 등의 장르소설이 43.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로맨스 소설 분야에 쏠린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한국로맨스소설작가협

회 정은숙 회장은 "남성 대상 소설은 판타지, 라이트 노벨, 추리, 무협 등으로 세분화된 반면에 여성 대상 장르소설은 온전히 로맨스 소설로만 집중한 덕분에 판매량이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교보문고 이소연 MD는 "로맨스 소설의 주 독자층의 연령층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로맨스소설의 주 독자층은 탄탄한 구매력을 갖춘 30~40대 여성"이고, 남성성에 비해 취미생활에 흔쾌히 지갑을 여는 여성 독자층의 성장도 로맨스 e-book 시장의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을 겨냥한 로맨스 소설

작은 모바일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무거운 내용이 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긴 문장이 오히려 독자들의 몰입도를 방해한다. 읽는 이의 집중을 깊게 요구하지 않는 가벼운 소설이 로맨스 소설 시장의 중심이다. 감동적인 대하서사, 캐릭터의 내면적인 성장처럼 문학적인 장치나 플롯 없이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매력만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교보문고 이소연 MD는 "네이버 웹소설 같은 해당 연재 형식에 적합한 초반부의 빠른 전개 역시 최근 베스트셀러들의 특징"이라 설명했다. 권당 2천 원에서 4천 원 정도의 가격대에, 한 두 권 선에서 완결이 나는 것이 간편하게 읽는 스타일과도 적합한 것이다.

앞으로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는 한 로맨스 소설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이소연 MD는 "기존의 메이저 연재 플랫폼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자극적인 19금 소재의 소설들도 이미 판매량으로 검증된 19금 독자군에 어필하기 위해 더 많이 출간될 것"이라 말했다.

볼 꺼진 방안, 그녀는 손가락으로 단말기 액정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여교사들의 반란. 애원하게 만들어줘', '나의 짐승같은 교수님'같은 자극적인 제목에 슬며시 웃음이 났다. 그리고 이내 은밀한 독자가 시작된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BACKSTAGE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배우, 극본, 연출가들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연극 <수상한 흥신소 3탄>

정영성/김하윤/표혜진/공훈/윤지영 배우

<수상한 흥신소 3탄>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 이랑이가 자신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 엄마 아빠의 결혼을 방해하는 이야기이다.

이랑이 역을 맡은 표혜진, 이랑이의 엄마인 김인영 역의 김하윤, 아빠 임향한 역의 정영성, 멀티남 공훈, 멀티녀 윤지영까지 다섯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다.

Q. 배우로 힘든 점이 있다면?

하윤: 배우는 항상 다른 관객 앞에서 같은 공연을 해야 하죠. 컨디션에 따라 감정 조절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배우가 감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이랑이'라는 캐릭터는 죽고 싶어 하면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써 밝은 척을 하죠. 너무 가볍게 표현해서도, 또 너무 무겁게 표현해서도 안 되는 역할이죠. 감정의 변화들을 표정이나 시선처리 등으로 연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배우가 된 이유?

혜진: 어린 시절부터 영화배우가 꿈이었고, 대학

도 방송연예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진정성있는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공훈: 전 사춘기 시절 봐왔던 수많은 흥영영화들과 한국 영화 중 '비트'라는 작품을 보고 완전히 빠져서요. 그 때가 가장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웃음)

하윤: 노래를 좋아했던 제가 우연한 기회로 연기를 배우게 되었어요. 연기를 할 때만큼은 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연기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Q. 공연 사이에 에드립이 많은 편인가?

공훈: 멀티 역할을 하시는 배우들은 거의 비슷하시겠지만, 그날그날 관객 분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위험요소가 있는 에드립은 자제합니다. (웃음)

Q.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무대?

영성: 수상한 흥신소 3탄이 '웨딩드레이커'라는 제목으로 공연될 당시 청주 공연이 진행될 적었어요. 객석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관객 분이 계셨어요. 눈물을 참아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코끝이 찡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출판사 마담드디카의 연재작 이세영 작가의 '충동의 날개', 신윤희 작가의 '나의 짐승같은 교수님.'

Gamesave

성공한 게임들은 대부분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만든 게임이 많다는 사실! 'Gamesave'는 게임, 그리고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칼럼이다.

하버드 대학을 스스로 걸어찬 게임업계 '풍운아'

“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건, 그저 술 마시는 방법뿐이었다 ”

게임회사 밸브 코퍼레이션의 창업자 게이브 뉴웰은 업계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하프라이프', '포탈',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내놓는 게임마다 성공시켰다. 디지털 게임소프웨어를 구축해 세계 게임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가장 존경받는 게임 크리에이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다. 게이브 뉴웰은 미국의 유복한 중산층 집안의 '엄친아' 출신이다. 어릴 적 부모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려 했지만, 컴퓨터의 매력에 빠져 프로그래머로 진로를 바꾸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명문대라는 간판만 있을 뿐, 학교수업은 도움이 안됐다. 술 먹고 파티에 나가는 일상이 계속됐다. 이후 게이브 뉴웰은 한 인터뷰에서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술 마시는 방법뿐이었다. 사회생활에 유용한 기술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1983년, 그는 지인의 소개로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때만 해도 MS는 직원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다. 당시 임원으로

하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1인칭 슈팅게임 '돔'을 접한 후 게임이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다. 자유로운 개발정신과 게임의 무한한 가능성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안정된 대기업 생활은 의미가 없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직장 MS를 나와 게임회사를 설립했다. 밸브를 틀던 아이더가 팔팔 넘치려는 뜻에서 회사이름을 '밸브 코퍼레이션'이라고 지었다. 첫 작품 '하프라이프'는 가히 혁명이라 불릴 만큼 혁신적인 게임이었다. 사람들은 게임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깊이 있는 스토리에 열광했다. 이후 밸브는 내놓은 작품마다 성공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 도전적인 게임을 원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학벌이나 경력 상관없이 중용했다. 실제로 무명의 인디개발자들을 파격적으로 영입해 '포탈'이라는 대작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게임에 자신의 꿈을 담았고, 목표를 위해 끊임 없이 도전했다. 지금도 전 세계 게임 팬들은 이 '풍운아'의 차기작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어바웃 이덕규 편집장 gabriel@gameabout.com

광대 폭발! 감동 폭발!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코미디!
이번엔 시간여행이다!

NO.1 연극

수상한 흥신소 3

부제_작전! 임이랑지우기

익스트림씨어터2관 OPENRUN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제작 익스트림씨어터 | 객/연출 임길호
공연문의 | 익스트림씨어터 070-8129-7420